No. 6 배당·주주환원 읽는 시간 5분

배당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주식일까?

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늘 좋은 선택일까요? 주가 하락, 배당 지속성, 배당락, 총수익을 가상의 숫자로 하나씩 계산해 봅니다.

한 줄 결론

배당수익률은 주가와 이익이 받쳐 줄 때만 믿을 수 있는 숫자

확인할 숫자

배당수익률, 배당성향, 배당락, 주가 변동률



사진: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손, Images_of_Money, Flickr.

목차

1. 배당수익률은 무엇을 알려 줄까?
2.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수익률은 왜 올라갈까?
3. 배당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까?
4. 배당을 받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?
5. 배당과 주가 변동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?
6. 배당주를 볼 때 던질 네 가지 질문

> 이 글의 회사와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.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 권유가 아닙니다. 세금은 계산에서 뺐습니다.

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는 말에 끌려 종목 검색 화면을 열어 본 적, 한 번쯤 있을 겁니다. 배당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두 자릿수 숫자가 위쪽에 줄지어 나오죠.

그렇다면 배당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주식일까요? 가상의 숫자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.

01

배당수익률은 무엇을 알려 줄까?

배당은 회사가 번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돈입니다. 배당수익률은 주가 대비 한 해 배당금의 비율로,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 구합니다. 지금 주식을 사면 배당으로 몇 %를 돌려받는지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.

주가가 10,000원이고 한 주당 배당금이 500원인 가상의 회사 K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배당수익률은 500원 ÷ 10,000원, 즉 5%입니다. 100주를 가졌다면 한 해에 5만 원을 받습니다.



그림 1. 가상의 회사 K. 배당금과 주가는 설명용 예시임.

이처럼 배당수익률은 분자(배당금)와 분모(주가)로 이뤄진 비율입니다. 두 숫자 중 어느 쪽이 움직여도 비율은 달라집니다.

02

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수익률은 왜 올라갈까?

분모인 주가가 내리면 같은 배당금도 비율은 커 보입니다. 회사 K의 주가가 10,000원에서 5,000원으로 반토막 났는데 배당금 500원은 그대로라고 하겠습니다. 배당수익률은 500원 ÷ 5,000원, 즉 10%로 두 배가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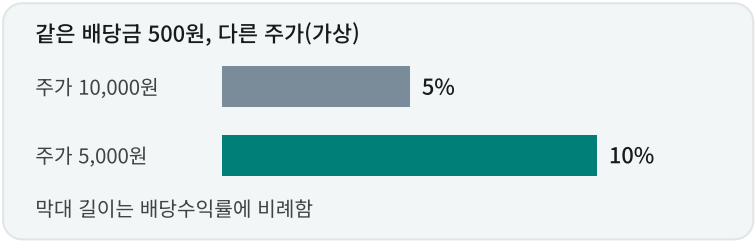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주가가 반토막이면 배당수익률은 두 배로 보임. 배당금은 그대로라고 가정함.

숫자만 보면 더 좋아졌지만 내 계좌는 다릅니다. 1,000주를 가졌다면 배당으로 50만 원을 받는 동안 평가액은 500만 원 줄었습니다. 배당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먼저 주가가 왜 내렸는지 봐야 합니다.

높은 숫자가 함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03

배당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까?

배당은 회사가 약속한 이자가 아닙니다. 이익이 줄면 배당도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를 가늠하려고 배당성향(순이익 중 배당으로 내보내는 비율)을 봅니다.

회사 K의 순이익이 10억 원이고 배당으로 5억 원을 줬다면 배당성향은 50%입니다. 그런데 순이익이 4억 원으로 줄었는데도 배당 5억 원을 유지하면 배당성향은 125%입니다. 번 돈보다 더 나눠 주는 셈이라 오래가기 어렵습니다.



사진: 펜과 안경이 놓인 검은 수첩, Generationbass.com, Flick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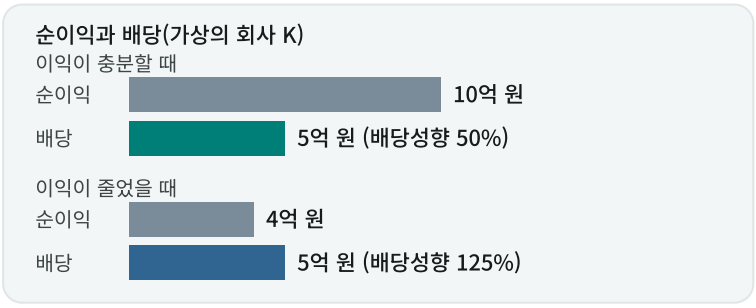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함. 순이익보다 배당이 크면 배당을 이어 가기 어려움.

그래서 배당수익률과 함께 순이익이 꾸준한지, 배당성향이 100%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.

04

배당을 받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?

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. 이날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가는 보통 배당금만큼 내린 채 시작합니다.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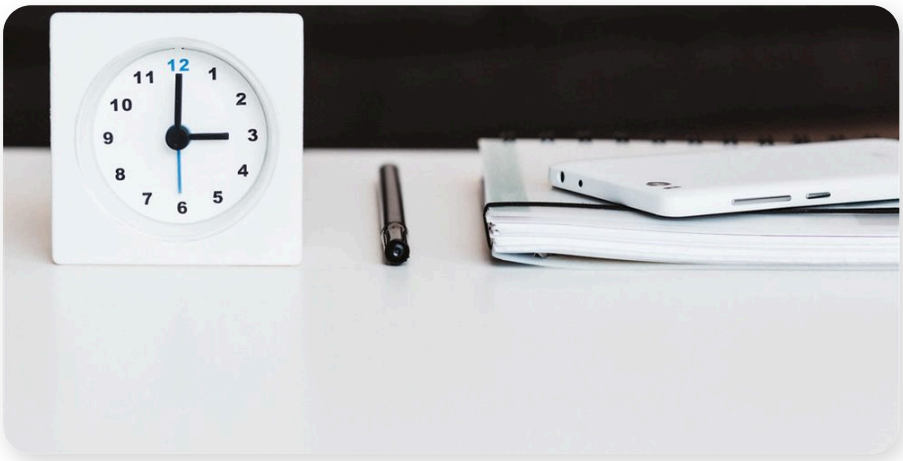


사진: 흰 책상 위의 탁상시계와 펜, 노트, freestocks.org, Flickr.

회사 K의 주가가 10,000원이고 배당금이 500원이라면, 배당락 뒤 주가는 약 9,500원이 됩니다. 내 손에 주식 9,500원어치와 배당 500원이 있으니 가진 돈의 합은 10,000원으로 그대로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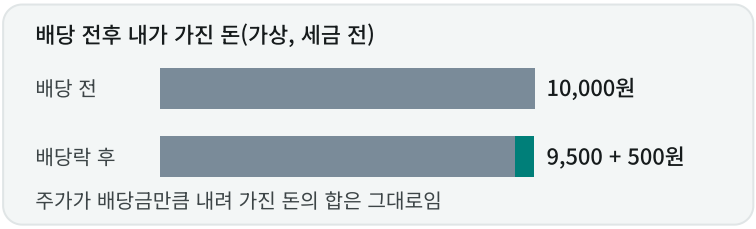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함. 청록색 조각이 배당금 500원임. 실제 주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짐.

그러니 배당은 공짜 돈이 아니라 내 주식 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. 여기에 배당소득세까지 붙는다면 손에 남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[확인 필요].

05

배당과 주가 변동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?

결국 따져야 할 것은 총수익입니다. 총수익은 배당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을 더한 값으로,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.

가상의 종목 A는 배당수익률 5%인데 주가가 8% 내렸고, 종목 B는 배당수익률 1%인데 주가가 6% 올랐다고 하겠습니다. A의 총수익은 5% − 8%, 즉 마이너스 3%이고 B는 1% + 6%, 즉 플러스 7% 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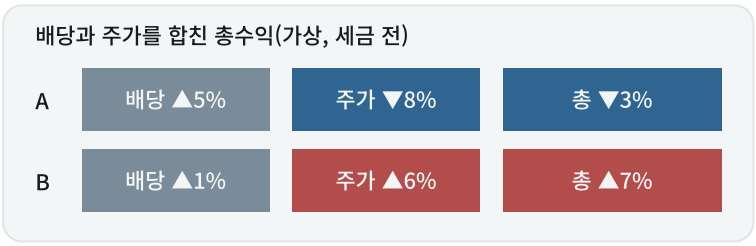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가상 예시.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주가가 더 크게 내리면 총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.

이처럼 배당수익률이 높은 쪽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. 배당은 총수익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.

06

배당주를 볼 때 던질 네 가지 질문

지금까지의 내용을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배당수익률이 눈에 띄는 종목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1. **"배당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주가 하락 때문은 아닌가?"**
   → 분모인 주가가 내려서 높아 보이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.

2. **"이 배당을 앞으로도 줄 수 있는가?"**
   → 순이익이 꾸준하고 배당성향이 100%를 넘지 않는지 봅니다.

3. **"배당락과 세금을 빼면 손에 얼마가 남는가?"**
   → 배당은 주식 값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.

4. **"배당과 주가 변동을 합친 총수익은 얼마인가?"**
   → 배당이 커도 주가가 더 크게 내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.

이처럼 배당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주식인지는 그 숫자 하나로 알 수 없습니다. 오늘은 보유 종목의 배당성향과 최근 주가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[담당자 검토]

참고 자료

- 글에 쓴 회사 K, 종목 A·B와 모든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
- 실제 배당금·배당성향·배당락일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 또는 증권사 앱의 종목 정보 [확인 필요: 메뉴 위치와 기준일]
- 배당소득세와 계좌별 과세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이용 중인 증권사 안내 [확인 필요: 현재 세율]
- 사진 3장의 작가·라이선스·출처는 각 사진 아래에 적음(저금통 Images_of_Money, 수첩 Generationbass.com, 시계 freestocks.org)

분류·태그 배당·주주환원 #기초지표 #배당 #배당락 #배당수익률 #세금 #주주환원

온라인 원문: https://www.stock-diary.kr/p/2026-11-15-dividend-yield.html

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(생성형 인공지능)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,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.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「참고 자료」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, 허락 없이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, 출처는 본문 캡션과 「참고 자료」에 밝혔습니다. [담당자 검토]